조선 성리학 찬란하게 꽃피우다
고봉과 퇴계의 사단칠정 논쟁

新湖南誌 〈29〉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제8부 여행과 문학

① 기대승과 이황이 주고받은 편지의 길

이향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광주 광산구 광산동에 있는 조선 중기의 서원 월봉서원은 고봉 기대승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됐다. 〈광주일보 DB〉

고봉 기대승, 1558년 명종 13년
32세 나이로 문과 급제 한 뒤
58세 퇴계 만나 13년간 서신 교환

고봉이 조성한 서실 낙암,
망천사로 이름 바꾸고
임란 후 망월봉 동천으로 옮긴 뒤
1654년 월봉서원 탈바꿈
1978년 광산구 너브실마을에 자리
축제·서원 체험·강좌 등
고전·현대 어울린 프로그램 다채

조선의 16세기는 여러모로 특별한 시대였다. 크고 작은 사화와 정치적 혼란이 사회 상층부를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여기에 극적인 충격을 준 것은 외부적인 요소, 즉 1592년의 임진왜란이었다. 1392년 건국된 해로부터 계산하면 정확하게 200년이 지나 일본의 침략을 당한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임진왜란 직전의 2세기 동안 조선의 사회 각 방면에서 축적된 잠재적 가능성들이 16세기에 이르러 사회 각 부분의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이것은 사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려말에 도입된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200년을 지나면서 점점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고, 한국 성리학은 수입된 사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철학적 문제의식과 결합된 사유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동시대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세 명의 유학자가 태어나 활동했는데, 사실상 이들은 훗날 조선 유학사 전체를 대표하는 사상가들로 성장했다.

퇴계 이황이 1501년, 고봉 기대승이 1727년, 율곡 이이가 1536년에 태어났다. 퇴계가 세상을 떠난 1570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1536년부터 1570년까지의 35년은 이 세 사람의 철학자가 동시대를 호흡했던 시기로서 우리나라 유학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봉은 이 세 명의 걸출한 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고봉으로 인해 호남 유학계는 조선 유학사라는 커다란 학술적 장에서 스스로의 학술적 수준과 위상을 증명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 성리학계의 철학적 탐구 방향을 결정짓는 사단칠정 논쟁의 당사자였기에 퇴계와의 만남은 더욱 뜻깊은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들의 만남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1558년 명종 13년 32세의 나이로 문과 을과 1등으로 급제하면서 낙남사대부의 아들이었던 기대승은 관계에 입문했다. 그리고 이 때의 한양행은 과거급제보다 더욱 중요했던 만남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급제 직후 한양에 머무르는 기간에 58세의 퇴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마주침은 훗날 조선유학사의 성격을 규정짓는, 즉 논쟁사로서의 조선유학사라는 통념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학술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

말하자면 원효 스님이 당나라 유학을 시도하던 중 "신라에 없는 진리가 당에 있을 것이며, 당에 있는 진리가 신라에는 없겠는가!"라는 자각을 불러왔던 깨달음의 순간 이후에 불교가 조금은 더 '한국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비견되는 순간인 것이다.

이 만남을 통해 고봉은 논쟁사로의 조선 유학사라는 이미지를 정초시킨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철학사적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호남 지성사는 고봉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한국 사상사의 한 축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순간을 살펴보면 한 가지는 분명한데, 다른 한 가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봉의 '연보'는 1558년 10월 문과에 급제한 직후에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의 신분으로 한양에서 퇴계를 최초로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듬 해 3월부터 퇴계와 그 유명한 사단칠정 논쟁을 시작한다는 것까지는 분명하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퇴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첫 장면을 묘사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연구자는 고봉이 한양에 머무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집에 조문을 간 자리에서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퇴계를 처음 만난 것 같다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을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처음 만남 이후 고봉과 퇴계는 친밀하게 서신을 주고 받았다. 1558년부터 퇴계가 세상을 떠나는 1570년까지 13년 동안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은 오늘날 '양선생왕복서'와 '양선생사칠이기왕복서'라는 구별되는 두 묶음으로 남아 있다. 그들은 스물여섯이란 연배 차이를 넘어서 때로는 스승과 제자처럼, 때로는 호각지세의 논쟁자처럼 많은 학문적 내용들과 삶의 고민들을 주고 받았다.

심지어 퇴계는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묘갈명'을 쓸 후보군에서 고봉을 빼라는 주문을 남기기도 했다. 고봉이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미화할 것이라는 걱정에서였다. 흥미롭게도 이 말을 들은 이들은 그 글을 쓸 인물로 고봉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고, 결국 '묘갈명'은 고봉에 의해 쓰여졌다.

그리고 퇴계가 세상을 떠난 2년 후 고향에 은퇴해 있던 고봉은 새로운 선조의 명을 받았다. 조선의 출발 초기부터 대명 관계에서 조정의 뒷목을 붙잡게 했던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해 발탁되었던 것이다. 상경하라는 선조의 명을 거절하지 못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상경한 고봉은 '변무소'를 쓰는 것으로 역할을 마감하고, 귀향하려 했으나 결국 다시는 고향땅을 밟지 못했다. 11월 한양에서 고향으로 내려오던 도중 병세가 악화되어 태인에서 쓰러졌고, 결국 고부에 있던 사돈 김점의 집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세상을 떠난 후 고마산 남쪽에 고봉이 조성한 서실이었던 낙암(樂庵)은 망천사(望川祠)로 이름이 바뀌었고, 임진왜란 이후 망월봉(望月奉) 아래 동천(桐川)으로 옮긴 후 1654년 결국 사액서원인 월봉서원으로 탈바꿈했다. 대원군 시대에는 훼철을 거쳐 1978년부터 광산구 광산동 너브실마을 깊숙한 곳에 들어서서 이제는 제법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서원이다.

과거 드나드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이곳은 몇 년 전부터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는 곳을 변모하고 있다. 작은 축제 같은 행사에서부터 서원 체험, 교양 및 전문 강좌, '살롱 드 월봉' 같은 고전적 낱말과 현대어가 어우러진 개성있는 프로그램들이 남달랐는지, 성과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관련된 이들의 남다른 노력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원을 오른쪽으로 끼고 나 있는 산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고봉의 묘소가 나오는데, 그치지 않고 쭉 이어지는 인적 드문 산길에 '철학자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철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철인의 삶과 행적은 이 조그마한 길의 곳곳에 퍼져있는 시원한 산의 공기처럼 호남의 지성사에 스며들어 있다.

짤막한 네 글자로 개인의 품행과 내면세계를 요약해내는 문화적 관행은 흔히 후한 시대의 월단평(月旦評)에 근거를 돌리고는 한다.

송대에 들어 이런 인물평은 주희(朱熹)의 스승인 '이동'에게 얼음이 담긴 옥 항아리와 가을 하늘의 밝은 달과 같다는 의미에서 '빙호추월(氷壺秋月)'이라는 멋들어진 사자성어를 탄생시켰다. 애초에는 '주돈이'에게 쓰인 낱말이었던 광풍제월(光風霽月)도 호남의 작은 별서 소쇄원의 두 건물에 녹아들었다.

이와 비슷하게 월봉서원의 중앙을 차지하는 강당에는 얼음처럼 깨끗한 마음과 눈처럼 밝은 달(氷心雪月)과 같다는 고봉의 기상을 기려 빙월당(氷月堂)이라고 우아한 당호가 걸려 있다. 서늘한 나무 마루에서 가을 햇살을 마주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빙월당주(氷月堂主)의 맑은 기상 한 조각을 얻어갈 일이다.

-전남대 철학과 강사
-전남대 대학원 철학박사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전임연구원
-전남대 철학과 BK21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호남의 유학자들' 등 저서 다수

전라도 들여다보기

우국지사 황현과 매천야록

김형주

매천 황현(黃玹,1855-1910)은 광양의 서석촌에서 황시묵(黃時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시를 짓고 암송하는 등 너무 총명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많은 일화를 남겼다. 청년시절에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가는 길에 문필의 명성이 높던 이건창·김택영 등을 만나 깊이 교유하였다. 그는 1883년 특별과거시험인 보거과(保擧科)에 응시해 초시의 초장에서 장원으로 뽑혔으나, 시험관이 비루한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등위를 깎아내려 차석으로 입격시켰다. 이에 심각하게 만연한 조정의 부패를 절감하고 회시와 전시(殿試)에 응시하지 않은 채 관직에 뜻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1888년에 아버지의 간청으로 생원회시(生員會試)에 응시해 장원으로 합격하였으나, 당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은 뒤 청나라의 간섭정책 아래에서 수구파 정권의 극심한 부정부패를 목격한 뒤 다시 관직을 내려놓고 귀향하였다. 구례 만수동에 '구안실'이라는 작은 서재를 마련해 외부세계와 절연하고 3000여 권의 서책을 쌓아놓고 독서와 함께 시문(詩文)활동, 역사 연구, 경세학의 연구에 매진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되자 울분을 금하지 못하고, 당시 중국에 있는 김택영과 함께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망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실의의 나날을 보냈다.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나라가 합병되자 통분하여 처절한 절명시(絕命詩) 4수를 남기고는 다량의 아편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며 저서로는 '매천집', '매천시집', '매천야록', '오하기문', '동비기략(東匪紀略)' 등이 있다.

대표 저술인 '매천집'과 '매천야록'을 살펴보면, '매천집'은 1911년 절친의 문장가인 김택영이 중국 상해에서 원집 7권을 펴냈으며, 이후 후손들이 1913년 누락자료를 2권의 속집으로 발간하였다. '매천야록'은 선생이 1864년부터 1910년까지 47년간의 역사를 연도에 따른 편년체로 서술한 것으로 한말에 난정(亂政)을 주도하였던 위정자들의 사적인 비위, 외세의 국권침탈을 위한 악랄한 책동 특히 일제의 잔혹한 침략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유장하고 끈질긴 저항정신을 담고 있다.

매천집에 수록되어 있는 몇 곳의 주요 대목을 짚어보고자 한다.

'매천집' 권5의 '절명시' 3편은 혼돈과 환란의 시기를 맞는 지식인의 깊은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새와 짐승이 슬프게 울고 산하도 찡그리니 / 무궁화 세상 이제 망해버렸구나 /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니 / 글을 아는 인간으로 사람구실이 어렵구나(鳥獸哀鳴海嶽嚬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매천집' 권4의 '상원잡영(上元雜詠)'은 1906년 풍전등화의 나라 운명을 목도하며, 정월대보름날의 여러 가지 풍속을 읊은 작품이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인의 예지가 드러나 있다. 매서(賣暑 : 더위팔기), '솔예'(罷曳 : 줄다리기), '치롱'(治聾 : 귀밝이술), 식풍간(植風竿 : 장대 세우기)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전래의 풍속을 되새김으로써,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출하고 있다. 애국시인의 시대인식과 우국정신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언행일치의 우국지사이며 실천적 지성인이었던 선생의 사진과 초상화는 보물1494호로 지정되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1등 맛집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10월 2,3,4일 휴무입니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